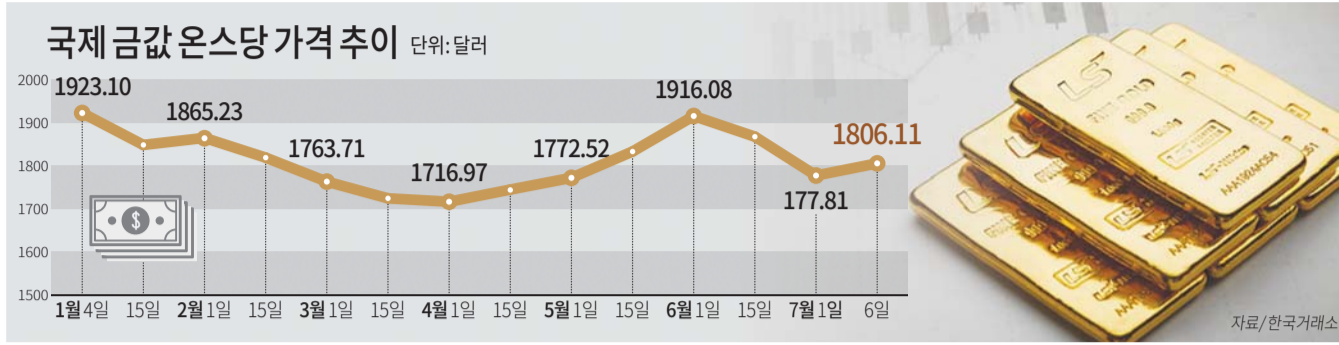


금값 하락에 웃는 ETF... 골드 마이너 인버스 수익률 好好

금값 하락 추종 ETF·ETN 강세
GDXD 골드 마이너 한달새 +45%

해외 대비 국내 금펀드 지지부진
12개 펀드, 한달 간 8.85% 하락
변동장세 속 저점매수 기회 유효



자료/한국거래소

코로나19 이후 고점을 기록했던 금(金)값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값을 반대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강세를 보이며 금값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 역시 주목받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서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 저점매수 기회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ETF닷컴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마이크로섹터스 골드 마이너 -3X 인버스 레버리지(MicroSectors Gold Miners -3X Inverse Leveraged) ETN'(GDXD)은 최근 한 달 동안 44.9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이 기간 전체 상

품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해 금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이면서도 변동성이 더 큰 '골드마이너 ETF'를 3배 역으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비슷한 성격의 '디렉시온 데일리 주니어 골드 마이너 인덱스 베어 2X 셰어즈(Direxion Daily Junior Gold Miners Index Bear 2X Shares)'(JDST)와 '디렉시온 데일리 골드 마이너 인덱스 베어 2X 셰어즈(Direxion Daily Gold Miners Index Bear 2x Shares·DUST)'도 같은 기간 각각 31.59%, 29.20%씩 상승했다.

금값 약세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현지 시간) 뉴욕상

업거래소(NYM) 기준 국제 금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1794.2달러에 마감해 전일 대비 0.61% 상승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2000달러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8월과 비교하면 10% 이상 낮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우려가 금값 약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최근의 국제 금리의 상승 여파 역시 금값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를 주지 않는 자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늘면서 금의 매력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

이 향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이은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금과 은 가격의 약세 흐름이 불가피하다"며 "가파른 하락에 따른 단기 반발 매수가 유입할 수 있으나 장기 약세 흐름에 베팅하는 매도 기회"라고 추천했다.

그는 ETF를 활용한다면 추천 종목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품인 'ProShare UltraShort Gold 2x'(GLL)를, 국내 상품으로는 국내 상품인 'KODEX 골드선물인버스(H)'를 꼽았다.

다만 인버스 ETF는 누적 수익률이 아닌 일간 수익률의 2~3배를 따라가는 만큼 철저한 단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루 이상 보관하면 기본

지수에 마이너스(-)2~3배로 노출되며 실제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운용 수수료도 비싸다. GDXD의 경우 운용 수수료가 0.95%로 책정됐으며 DUST와 JDST도 1.10%로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금 펀드 역시 지지부진하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설정액 10억원 이상 12개 금 펀드는 최근 한 달간 평균 8.85% 하락했다.

다만 지금의 변동장세를 저점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헤지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금은 경기순환이나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움직임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 움직임이 주식시장의 내재 변동성과 양의 상관성을 지닌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은 투자자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약세일 때는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관리종목 지정 vs 파상상... 스펙도 양극화

SK4호스팩 등 3개 관리종목 지정
1개월 내 예심청구 미제출엔 폐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종목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파상상상을 기록해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스펙주가 있는 반면, 합병 대상 찾지 못한 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머스트제6호스팩, SK4호스팩, 키움제5호스팩 총 3개 스펙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스펙들이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를 맞게 된다. 스펙은 상장 후 36개월 내 비상상장과 합병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된다. 만일 스펙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은 상장 공모가인 2000원에 1% 내외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비교적 낮은 수익률로 합병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내에 스펙이 도입된 이후 합병에 성공한 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상장 스펙 225개(코스피+코스닥) 중 합병에 성공한 기업은 121개로 집계됐다. 53.8%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상장폐지됐다.

반면 스펙시장 과열에 상장 초반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도 있다.

지난 6월 17일 상장한 삼성머스트스팩5호는 합병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상상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4거래일 연속 상한가)이라는 유례없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4거래일간 주가가 470% 급등한 것. 현재 삼성머스트스팩5호는 8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공모가와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주가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스펙주 급등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기술 확산 가속화, 풍부한 유동성 환경, 스펙 합병의 성공적 사례 등을 꼽았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신한자산운용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국내 업계 최초 가입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NZAMI)'에 가입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전 세계 자산운용사의 탄소중립 운동(NZAMI)에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돌입한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는 7일 기준으로 전 세계 128개 운용사가 가입해 있으며, 운용규모로는 43조달러(4경9조원)에 이른다. 이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운용사는 2050년까지 운용자산의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한국투자증권 리얼티코리아와 부동산 자문 맞손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DB 활용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리얼티코리아와 초고액자산가의 부동산 투자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리얼티코리아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통해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Global Wealth Management) 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화된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리얼티코리아는 상업용 빌딩 거래, 부동산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등을 사업영역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 기업이다. 한국투자증권의 GWM은 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협회 인가를 받아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 등 부동산 전문인력이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판단과 함께 매매·임대차 자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양유경 수습기자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기술·여행株 '경풍'

해외주식 Click

기술주 구성 인베스코 QQQ '1위' 크루즈 업체 카니발 단숨에 5위로

지난주 서학개미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대형 기술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강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될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며 성장주 중심으로 순매수가 이뤄졌고, 여행주도 10위권에 새롭게 입성했다.

7일 한국에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6월 28일~7월 4일) 국내 투자자들은 대형 기술주로 구성된 인베스코 QQQ를 3362만달러(약 380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벳과 페이스북 순매수액이 각각 2942만달러(약 333억원), 2533만달러(약 286억원)로 뒤를 이었다.

인베스코는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성장주 ETF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주가 수익률은 14% 수준이다. 알파벳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구글의 광고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를 받으며 2위에 올랐다. 주가는 올해 43% 상승했다. 최근 번스타인이 하반기에 주목할 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6년 만에 윈도우11을 발표하며 4위에 올랐다.

3위에 오른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최초로 시가총액 1조달러(약 1131조원)를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다섯 번째로 '1조 클럽'에 가입했다. 이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지방정부가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란 페이스북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데 대해 시장이 뜨겁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종목>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인베스코 QQQ ETF	3362만
2	알파벳	2942만
3	페이스북	2533만
4	마이크로소프트	2021만
5	카니발	1940만
6	소파이 테크놀로지	1816만
7	텐센트	1443만
8	로블록스	1327만
9	SPDR S&P 500 ETF(SPY)	1299만
10	아이세어즈 변동금리채권 ETF	1154만

여행주들의 약진도 돋보인다. 크루즈 업체 카니발은 지난주 순매수액 50위 밖에 있다가 단숨에 5위로 올라섰다. 카니발은 코로나19로 크루즈 운항이 중단돼 큰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2분기 순손실이 20억달러(약 2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2분기 예약 건수가 전 분기 대비 45% 상승했고, 오는 11월 말까지 42척의 크루즈를 운행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감은 그대로 매수세에 반영됐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난주 순매수액 3위에 올랐던 로블록스는 8위로 떨어졌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민감주가 단기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긍정적인 모멘텀까지 보유한 대형 기술주의 주가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해 나스닥에 우회 상장한 핀테크 기업 소파이 테크놀로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더 ETF, 아이세어즈 변동금리채권 ETF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양유경 수습기자 noon@